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제402호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尹대통령,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임명

### 대통령실 “국감 준비 등 고려”…김행 여가장관 후보자도 절차 밟아 임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개한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 이자 전략통 장성 출신임을 들어 적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를 기한 내에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



브리핑 참석한 국방·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절차를 밟았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두 부처 모두 10일에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신임 장관들이 국감을 치르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에 따라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고 휴일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데 따른

‘안보 공백’ 우려도 이날 신 장관을 신속히 임명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3일 단행된 2차 개각 인사 중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개최된 김 후보자 청문회는 막판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집단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으면서 파행했고, 민주당은 이를 맹비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하지만, 윤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행 후보자만큼 여가부 장관 관련 경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며 “일단 국회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 박정훈 기자



가자지구 접경서 불에 탄 이스라엘군 탱크

### 유대교 안식일 새벽 기습한 하마스, 허찌린 이스라엘 피해 속출

유대교 안식일인 7일(현지시간) 새벽 시간을 틈 타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오자 이스라엘에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평소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으로 철통 경계를 하는 이스라엘은 전날 유대 명절 초막절(수코트)이 끝난 직후 안식일에 이뤄진 대공세에 허를 찔려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알간 하레츠와 BBC·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라마스는 이날 새벽 6시 30분께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대대적인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다. 하마스 TV는 하마스 최고사령관이 공세 초기에 발표한 5천발에 더해 2천발의 로켓이 추가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IDF)은 가자지구에서 이날 오전 최소 2천500발의 로켓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지상에서도 팔레스티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미 지하드까지 합류해 대대적인 공세가 이뤄졌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과 알자지라 방송은 최소 22명이 숨지고 540명 이상 다쳤다고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을 인용해 전했다. / 신진호 기자

이스라엘 남부 곳곳에선 로켓 공격으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차량이 불에 탄 모습이 목격됐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에는 남부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대원이 행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른 영상에는 가자지구-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이스라엘군의 탱크에 팔레스타인 무장대원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하레츠는 무장대원들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군 검문소를 공격하고 침투했으며, 이스라엘 남부 여리 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무장대원들은 남부 스데로트에서 경찰서를 공격했으며, 주택 침입 신고도 접수됐다. 이스라엘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군을 납치, 살해해 시신을 가자지구로 옮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남부 네티보트와 오포카 마을에서는 이스라엘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통틀어 역대 최고

### 지난해 6·1 지방선거·2021년 4·7 재보궐선거보다 높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를 기록했다.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를간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천31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2.64%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포함한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기존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의 20.54%

였다.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20.62%였다.

다른 전국 단위 선거까지 보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했다. 대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였고, 총선은 2020년 21대 총선 때 26.69%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강서구 1곳으로, 강서구 관내에서만 사전투표소가 운영됐다.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은 여야가 극

렬한 대치 정국을 이어갈 때 따라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여권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 결과로 해석하면서도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

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지층이 결

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본투표 까지 겨우한 자세로 강서구민들과 만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심판론’ 등을 앞세워 투표 참여를 독려해 온 민주당은 높은 투표율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에 대한 강서구민의 관심이 큰 결과로 본다”며 “보궐선거를 있게 한 장본인을 다시 공천하는 등 여당의 여러 문제를 심판하려는 유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높은 투표율이 오는 11일 열리는 본투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본투표율이 저조해 합산 투표율은 50.9%에 머물렀다. / 강민수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 군검찰, 항명 등 혐의로 해병대 前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수사외압 여부 재판서 가려질듯…군 “외압 확인 안돼”, 단장측 “외압 의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6일 박 전 단장을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내용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 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7월 31일부터 여러 차례 김 사령관으로부터 해외 출장 중인 이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명령을 받았다. 김 사령관은 8월 2일에도 조사기록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인계

를 면추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인계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남긴 채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8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 인터뷰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혐의자 중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단은 8월 30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날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기소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많은 팩트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진실이 국민에게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박 전 단장 측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및 박 전 단장 항명 혐의와 관련해 여전히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김 변호사는 “외압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검찰단은 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건 은폐 및 왜곡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무관리관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혐의사실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기록을 그대로 송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박 전 단장에게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 임준영 기자



## 기름값 13주 연속 상승 “다음주 하락세 전환 가능성”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다음 주부터 국내 가격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 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2~5일) 전

국 휘발유 수요둔화, 이라크 쿠르드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 등 요인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6달러 내린 배럴당 9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2.5달러로 8.1달

## 이번주 휘발유 L당 6.3원·경유 7.4원↑

### 국제유가 하락 영향 반영될 듯

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L당 6.3원 오른 1천796.0원이었다. 국내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천 876.8원으로 같은 기간 4.0원 올랐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은 1천761.2원으로 역시 4.0원 상승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802.7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 주유소가 1천768.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가는 지난주 대비 7.4원 오른 1천700.2원으로 1천700원 선을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미국 국채금리·달러 강세 지속, 투기세력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 미

려 떨어졌고,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22.1달러로 4.3달러 내렸다. 국제 유가 등락의 영향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약 2주 전부터 내려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는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역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중인 만큼 다음 주에는 국내 주유소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경유 가격은 보합 또는 소폭 하락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유형진 기자



유인촌 신임 문체부 국무총리

## 유인촌 문체부 장관, 현충원 참배 “문화로 희망과 위로를”

### 11일 세종청사서 취임식

유인촌 신임 문체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안을 재가한 뒤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했다.

그는 현충탑에 묵념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문화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이라고 적었다.

/ 채형민 기자

유 장관은 2008~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지내 같은 부처 장관으로 두 번째 임명됐다.

지난 5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유 장관은 10일 문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뒤 11일 문체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 채형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중고…물새고 엘리베이터 고장난 집 그대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건축왕 일당 범죄주의 물수를 촉구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구의 절반가량이 보증금 회수뿐 아니라 침수, 엘리베이터, 주택 화재보험 가입 등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단수 위기에 처하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을 호소했다.

보증금 미반환 위기 가구의 대부분은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

30대 남성 응답자는 결혼 계획이 불투명해졌고,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도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런데도 응답자의 61.5%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의 인식, 피해자를 명칭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인식 등을 꼽았다.

보증금 위기 가구의 99.6%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부 대책이 중점을 둔 경매 신청·유예 등 경매 관련 조치를 했다는 응답자는 10.5%, 정책대출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8.1%에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8.6%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물었더니 ‘피해 신청 이후 경과 안내 부족’(24.7%), ‘피해 신청 준비서류 마

## 민주당, 서울 강서구 보증금 반환 위기 가구 조사 결과

### 절반이 “주택관리 어려움 겪었다”…80% 이상 ‘신체·정신건강 악화’ 호소

보증금을 못 돌려준 집주인이 주택 관리에도 손을 놓으면서 세입자들이 이중고를 겪는 형국이다.

응답자의 81.2%는 신체 건강이 나빠졌다고, 96.6%는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고 각각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총센터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239가구를 대면·설문·온라인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49.4%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이후 주택 화재보험 가입, 소방 관리자 지정, 엘리베이터 수리, 침수 예방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집주인의 공과금 미납으로 한 아려움’(20.7%), ‘결과 통보가 오래 걸림’(20.5%) 등의 응답이 나왔다.

조사를 진행한 민주당 전세사기 고총 센터는 “정부가 보증금 위기 가구의 세부 실태를 파악해야 다양한 피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권지웅 고총센터장은 “전세사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기존 대책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삶의 의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대책 추진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 신희성 기자

# 역도 박혜정, 장미란 이후 13년 만의 금메달…손영희는 2위

한국 역도가 아시안게임 같은 체급서 1, 2위 차지한 건 33년만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20·고양시청)이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최중량급(87kg 이상) 챔피언에 올랐다.

박혜정은 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87kg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5kg, 용상 169kg, 합계 294kg을 들어 우승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역도 종목에서 우승한 건 2010년 광저우 대회 여자 최중량급(당시에는 75kg 이상)에서 금메달을 딴 장미란(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후 13년 만이다.

이 체급 최강자 리원원(23·중국)이 부상으로 불참하면서, 박혜정은 유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했고 예상대로 가장 무거운 바벨을 들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손영희(30·부산시체육회)는 이날도 인상 124kg, 용상 159kg, 합계 283kg



바벨을 드는 손영희

으로 2위를 해 2회 연속 은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최중량급 우승 경쟁은 일찌감치 박혜정과 손영희의 2파전으로 굳어졌다.

박혜정은 2023년 세계선수권, 손영희는 2021년 세계선수권 챔피언답게 명승부를 벌였다.

인상에서 손영희가 1차 115kg, 2차 120

kg, 3차 124kg을 차례대로 성공하자, 박혜정도 118kg, 123kg, 125kg으로 조금씩 무거운 무게를 들어 균소하게 앞서나갔다.

두 안각소른 차이디(26·태국)가 합계 275kg(인상 120kg·용상 155kg), 3위로 경기를 끝낸 뒤 박혜정과 손영희의 대결은 더 치열해졌다.

손영희는 용상에서 1차 155kg, 2차 159kg을 성공해 박혜정을 압박했다.

하지만, 박혜정은 침착하게 157kg, 160kg을 들었다.

손영희는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자신이 보유한 용상 한국 기록과 같은 169kg을 신청했다. 승부수를 띄웠지만, 아쉽게 바벨을 뒤로 떨어뜨렸다.

박혜정은 용상 169kg도 번쩍 들어 이부분 타이기록을 세우며 ‘클린 시트’(인상, 용상 총 6차례 시기 모두 성공)로 경기를 마쳤다.

/ 최준용 기자

## 37년만의 양궁 3관왕 등극한 임시현 “MVP 뽑아주세요!”

‘도쿄 3관왕’ 안산 물리치고 여자 개인전 금메달



‘도쿄 3관왕’ 안산 물리치고 여자 개인전 금메달

메달까지 거머쥐며 3관왕으로 등극했다.

시상식 뒤 공동취재구역(믹스존)으로 들어온 임시현은 체육회 MVP로 뽑히고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활짝 웃으며 “저 뽑아주세요!”라고 말했다.

임시현은 MVP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37년 만에 탄생한 3관왕이다.

또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된 해에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3관왕에 올랐다.

이날 그가 상대한 안산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최초로 올림픽 양궁 3관왕이 되는 스타다.

임시현은 “산이 언니와 최선을 다하며 경기를 즐기겠다고 마음먹고 결승에 임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임시현은 올해 여자 대표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컵 2차 대회와 6월 콜롬비아 메데인 3차 대회에서 거푸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다.

여기에 단체전에서도 언니들과 금메달을 합작, 두 대회 연속 2관왕에 올랐다.

여기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쓸어 담았다.

도쿄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안산의 2년 전 활약상을 떠올리게 한다.

“언니들을 잘 따라가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자신을 낮추기만 하던 임시현은 2024 파리 올림픽 얘기가 나오자 “메인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인다. 잘 준비해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눈을 반짝였다.

안산은 “(결승전) 결과는 신경 쓰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점수가 좋지 않아서 끝까지 즐겁지는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자신을 이어 국제 종합대회 3관왕의 위

업을 달성한 임시현에게는 “축하한다. 이 경험을 잘 살려서 다른 국제대회에서도 활용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고 덕담했다.

/ 양희진 기자



7일 중국 항저우 빙장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남자복식 결승에서 한국 최솔규-김원호가 인도의 사트워세라지 란카레디-치라고 세티를 상대하고 있다.

## 배드민턴 최솔규-김원호,

남자복식 은메달…인도팀에 패배

배드민턴 최솔규(28·요넥스)-김원호(24·삼성생명)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솔규-김원호는 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빙장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3위 사트워세라지 란카레디-치라고 세티(인도)에게 0-2(18-21 16-21)로 패했다.

/ 이영호 기자

한국 남자복식의 아시안게임 메달은 2014년 인천 대회에서 준우승한 유연성-이용대 이후 9년 만이다.

이로써 이 대회 금메달 1개(여자단체), 동메달 3개(남자단체·혼합복식·여자복식)를 획득했던 한국 배드민턴은 은메달을 하나 추가했다.

/ 이영호 기자

## 문혜경, 소프트테니스 여자 단식 금메달

### 윤형욱은 동메달

문혜경(NH농협은행)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프트테니스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했다.

문혜경은 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소프트테니스 여자 단식 결승에서 다카하시 노아(일본)를 4-0(4-2 4-2 4-0 4-0)으로 가볍게 따돌렸다.



3-4(4-1 1-4 4-6 10-8 0-0 4-4-2-3-7)로 분패해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소프트테니스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소프트테니스가 처음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이후 한국이 금메달 1개로 대회를 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인천에서는 한국이 금메달 7개를 훨씬 넘었고, 금메달 수가 5개로 줄어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를 수확했다.

/ 박소희 기자

##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세무상담**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 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 경찰,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검찰 이송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재판거래 의혹’ 등과 함께 수사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이송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 1부(강신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과 경찰은 현 수사 단계에서 한 수사기관이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 전반을



권순일 전 대법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왔으나, 이번 이송 조치로 그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맡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

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게 아니라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를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 임진성 기자



피의자 검거 장면

## 이틀간 화장실·엘리베이터서 3차례 여성 연쇄폭행…고교생 검거

### 시동 걸기 전 ‘후~’…상습 음주운전자에 측정장치 의무화



허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그와 같은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예컨대 내년부터 2년간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하는 음주운전자는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 2년간 방

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만일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장착 대상을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 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착 대상자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한정한 것은 음주운전 재범자 중 해당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 권유희 기자

### “숨진 양천구 교사,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 겪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38)가 생전에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힘들어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구 교사 사망사안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 한 공립 초등학교의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에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으며, 올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았다. 이후 연차 휴가, 병가 등을 길게 사용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는 고인이 올해 학급을 맡았을 때 폭력적 성향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고, 학생들 간 다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평소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단은 동료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고인이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으로서의 고민이 있었음

도 학급일지와 동료 전술 등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학급에서 올해 학교폭력 사안도 2건 발생했지만, 이는 고인이 병가 및 휴직 상태일 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민원 의혹을 조사한 결과 고인이 지난 4월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해 학생 학부모에게 교실 전화를 사용해 전화를 건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와 정황은 파악할 수는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이나 다른 수단을 활용한 학부모와 고인 간 연락 여부는 조사단의 권한 밖이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특별조사단은 학교 측이 고인의 사망 다음 날 열린 부장 회의를 통해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부장 회의에서 ‘구체적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지만, 사안 자체를 은폐·축소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의 진술로 확인됐다.

고인의 학교에 119 구급차가 출동했고, 고인의 학급 담임이 4번 교체됐다는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박현욱 기자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생면부지 여성들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16·고등학생)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

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 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 또다시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A군은 지난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차 범행인 D양 대상 범행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끌고 나와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잇달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CCTV 확인, 탐문 및 통신 수사를 통해 A군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 결과 경찰은 7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

포했다.

A군은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총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이 너를 등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친 피해자들 역시 일부는 진술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시한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A군을 조사한 뒤 늦어도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폭행 혐의를 알게 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들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의왕 사건 가해자는 지난 7월 한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들을 향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20년을 최근 확정 선고받았다.

의왕 사건 가해자는 지난 7월 한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들을 향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20년을 최근 확정 선고받았다.

/ 서종익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 세계 각국 일제히 하마스 규탄…우크라도 “자국방어권 지지”

미 국무부 “테러공격 규탄”…EU 미셸 의장 “이스라엘 국민과 연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감행하자 세계 각국이 잇따라 규탄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 산하 팔레스타인 담당 사무소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마스 테러범들의 공격과 이로 인한 인명 손실을 명백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측에 폭력과 보복 공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테러와 폭력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 입장을 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비통 속에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하마스의 공격을 명백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끔찍한 폭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테러와 폭력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EU는 이 어려운 시점에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스라엘 아슈케仑 시내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받은 차량이 불타고 있다.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과 그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강하게 규탄한다. 이날 아침 이뤄진 이 공격은 무고한 시민에게 테러와 폭력을 가했다”고 적었다.

미셸 의장은 “모든 희생자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EU는) 이 끔찍한 순간 이스라엘 국민과 연대하는 입장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유럽 각국도 잇따

라 하마스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은) 가자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감행된 테러 공격을 단호히 규탄한다”면서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표명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테러에 반해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도 “영국은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명백히 규탄한다”며 “영국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주재 프랑스 대사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런 테러 공격은 인정할 수 없으며 모두에 의해 규탄돼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인과 나란히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1년 8개월째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의 자국 방어권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에 대해 진행 중인 테러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국과 자국민을 방어할 권리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썼다.

/ 김희성 기자



홍콩 국제공항 출국장

### 홍콩인 대상 캐나다 영주권 규정 완화에 신청 ‘급증’

캐나다가 지난 8월 홍콩 주민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에서 학력 제한을 없애자 신청이 급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8월 한 달간 홍콩인을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 ‘홍콩 패스웨이’ 신청자가 80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7월 473명보다 70% 급증한 역대 월간 최다 규모로, 캐나다가 8월 15일부터 ‘홍콩 패스웨이’ 프로그램에서 학력 규정을 폐지한 영향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워킹 허리데이’ 프로그램을 포함해 12개월간 캐나다에서 취업한 홍콩인은 학력 요건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을 찾는 자민당 간부는 지난 8월 이소 다로 부총재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전했다.

/ 김민재 기자

한 ‘홍콩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2021년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5천200여 명이 캐나다 영주권을 얻었다.

홍콩 이민 컨설턴트 윌리스 푸는 SCMP에 “다른 나라 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해 ‘홍콩 패스웨이’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신청자들은 영어 구사력을 늘리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2년 반 동안 홍콩인을 위한 특별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에 도착한 홍콩인이 12만3천800명이라고 밝혔다.

주민 엑소더스(대탈출)에 홍콩 당국은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홍콩국가보안법 이후 달라진 환경 속에서 서구인의 홍콩행은 급감한 가운데 중국 본토인들이 대거 홍콩으로 이주하고 있다.

/ 황순길 기자

## 의원 40여명, 대만 방문해 10일 총통 면담…“역대 최대 규모”

일화의원간담회 회장 “올 재팬”으로 대만 지원”…집권당 간부도 대만행

일본 국회의원들이 7일 대만을 찾아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인 오는 10일 차이영원 총통과 면담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과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 초당과 의원 연맹인 ‘일화(日華)의원간담회’ 소속 의원 40여 명이 이날부터 10일까지 대만을 방문한다.

대만을 방문하는 일본 의원단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 의원인 후루야 게이지 일화의원간담회 회장은 이날 대만 방문 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 재팬”으로 대만을 지원한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대만 방문한 일본 국회의원들

일본 의원들은 차이 총통과 면담에서 대만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벨상 수상자 48명 “우크라 난민아동 위해 부호들이 기부해야”

2021년 평화상 러시아 무라토프 주도…“억만장자 3천명이 1억달러씩”



202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라토프

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난민이 됐다”며 “이를 참고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라토프는 지난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역대 수상자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동료 수상자들로부터 서명받았으며 뜨거운 반응에 놀랐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작년 6월 그가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지원을 위해 경매에 부친 노벨평화상 메달은 노벨상 메달 경매 역대 최고가인 1억350만 달러(약 1천400억원)에 낙찰됐다. 수익금은 전액 유니세프에 전달됐다. 그는 이 밖에도 노벨상 상금 중 약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를 다양한 활동에 기부했다.

무라토프는 독립신문 ‘노바야 가제타’를 공동 설립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보도를 해왔다.

그러나 신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당국의 처벌 위협 속에 작년 3월 폐간했다.

그는 또 지난 달 러시아 정부에 의해 사실상 간첩을 뜻하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지정됐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으로 우크라이나 내 학교가 1천300개 파괴되고 300만명 이상의 우

학상을 비롯해 과학·경제학 부문 수상자들도 서명했다.

서한은 세계 최고 부자 3천명을 향해 올 연말까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1억 달러씩 기부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접 고통받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기아로 고통받는 어린이 등 전쟁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린이들까지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지난 달 러시아 정부에 의해 사실상 간첩을 뜻하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지정됐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으로 우크라이나 내 학교가 1천300개 파괴되고 300만명 이상의 우

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난민이 됐다”며 “이를 참고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로 나서는 라이징더 부총통과 제1야당 국민당 허우



###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의 모든 하루,  
나아가 푸른 자연까지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ESG 경영

PEOPLE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PLANET 글로벌 기준의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 동참  
PROSPERITY 디지털 혁신 기반 지속가능 투자 GOVERNANCE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조성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1:1 일차 멘토링에서 투자유치까지  
**IBK 창공**

혁신·벤처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IBK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7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50 E-mail : ibkethics@ibk.co.kr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한이 주거비 및 학습공간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신청해'를 신청하세요!**

##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신청해'



대상 :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출신 취약계층 청년 2,000명

내용 : 수도권\* 거주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용 지원 및 학습공간 이용비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9월 18일 ~ 10월 9일 [3주간]

신청접수 : [www.shinchunghae.co.kr](http://www.shinchunghae.co.kr)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통틀어 지칭함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 ‘영화의 바다 속으로’…부산국제영화제 주말 맞아 팬들 북적

##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서 열린 오픈토크, 순식간에 관객석 채워져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 나흘째인 7일 한글날 연휴를 맞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은 축제를 즐기려는 영화 팬들로 북적였다.

각종 부대행사가 열린 이곳에는 관객들의 함성이 곳곳에서 들렸다.

이날 BIFFXGENESIS 야외무대에서는 배우 나문희와 김영옥 주연의 ‘소풍’ 무대 인사를 비롯해 영화 ‘화란’, ‘물안에서’ 등 작품의 오픈토크가 진행됐다.

탁인 야외무대에 감독, 배우 등 영화인들이 등장하자 관객들은 환호했다.

무대 앞에 놓은 수백개의 객석은 순식간에 꽉 채워졌고, 자리를 잡지 못한 수십 명은 무대 주변에 서서 구경했다.

청소년부터 백발노인까지 다양한 연령 대의 관객들은 스타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연신 찍었다.

연휴를 맞아 친구와 부산을 찾았다는



영화 ‘화란’ 감독과 배우들이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토크 관객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훈 감독, 홍사빈, 김형서, 송중기.

30대 최모씨는 “서울에 사는데 영화를 좋 아해 매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다”며

“올해는 연휴가 길어 방문객이 많아서인지 경쟁이 치열해 영화표를 많이 예매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영화와 관련한 배우, 감독들의 깊 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어 좋다”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영화를 많이 상영하는 만큼 가능한 한 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인과 함께 온 30대 박모씨는 “저녁에 영화를 예매했는데, 낮에도 다양한 행사

를 많이 한다고 해 구경할 겸 미리 방문했다”며 “다른 지역에 사는 외지인과 외국

인이 영화제를 계기로 부산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인과 함께 온 30대 박모씨는 “저녁에

영화를 예매했는데, 낮에도 다양한 행사

를 많이 한다고 해 구경할 겸 미리 방문했다”며 “다른 지역에 사는 외지인과 외국

인이 영화제를 계기로 부산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휴를 맞아 친구와 부산을 찾았다는 30대 최모씨는 “서울에 사는데 영화를 좋 아해 매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다”며 “올해는 연휴가 길어 방문객이 많아서인지 경쟁이 치열해 영화표를 많이 예매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영화와 관련한 배우, 감독들의 깊 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어 좋다”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영화를 많이 상영하는 만큼 가능한 한 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인과 함께 온 30대 박모씨는 “저녁에 영화를 예매했는데, 낮에도 다양한 행사

를 많이 한다고 해 구경할 겸 미리 방문했다”며 “다른 지역에 사는 외지인과 외국

인이 영화제를 계기로 부산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오영찬 기자



서울시는 서울을 홍보할 직원 유튜버를 뽑는 ‘2023 서울홍보 유튜버(이하 서튜버) 선발대회’ 최종 우승자로 정규현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 ‘끼·재능’ 공무원 유튜버가 서울 알린다 초대 서튜버 선정

우승자 ‘서울 토박이’ 정규현 주무관  
“서울답게, 서울 스타일로”

서울시는 서울을 홍보할 직원 유튜버를 뽑는 ‘2023 서울홍보 유튜버(이하 서튜버) 선발대회’ 최종 우승자로 정규현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1차 심사를 마치고 2차 결선 진출자 6명을 확정했으며, 4일 오후 시민청 지하 2층 버스락홀에서

2차 결선을 진행했다. 결선에서는 시의 정책·제도와 관련한 속풀(짧은 동영상) 제작, 토론, 최종면접 등을 통해 우승자를 포함한 최종 3인을 정했다.

라운드별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의 최종 점수 합산 결과 대상에는 정규현 주무관(북부수도사업소)이 됐다.

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각 손용석 주무관(서울역사편찬원)과 이상섭 주무관(노동정책담당관)이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지하철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 제도’에 대한 속풀 제작과 심사위원 질의응답, ‘유튜버 영상 제작 시 콘텐츠와 편집 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토론 등을 거치면서 순발력과 개성을 드러냈다.

대상을 차지한 정 주무관은 제1대 서튜버로 활동하며 시 유튜브 콘텐츠를 자유롭게 기획·취재·편집·업로드 할 수 있게 된다.

정 주무관은 “생생 서울시에 살며 서울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시민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어떤 정보가 궁금한지 귀 기울여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서튜버로 활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제1대 서튜버 선발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작”이라며 “서울을 서울답게 매력 있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진성훈 기자

## 박완수 지사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모든 가능 통합관리해야”

### NASA 이어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우주항공복합도시 구상



매기니 리스트립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센터장과 악수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가 이끄는 ‘우주 항공 국제협력 경남 대표단’이 6일(현지 시간)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는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으로 미국 최대 연구조직이자 최초 우주 센터다.

경남도는 사전시에 들어서는 우주항공

전날 NASA를 찾은 경남대표단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기능과 조직, 주요 연구 프로젝트 현황을 파악하고 ‘허블 우주망 원경’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박 지사는 “NASA 방문을 통해 출범을 앞둔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러타워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NASA가 경남도, 우주 항공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우주 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과 인재를 경남에 끌어들이고 지역발전 새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전시에 들어서는 우주항공

전날 NASA를 찾은 경남대표단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기능과 조직, 주요 연구 프로젝트 현황을 파악하고 ‘허블 우주망 원경’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박 지사는 “NASA 방문을 통해 출범을 앞둔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러타워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NASA가 경남도, 우주 항공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우주 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과 인재를 경남에 끌어들이고 지역발전 새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전시에 들어서는 우주항공

## 서울정원박람회 찾은 오세훈 시장…“녹지조성은 서울시의 사명”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마포구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 서 열린 서울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개막식에 앞서 정원산업 관련 신제품·신기술을 소개하는 정원여 가산업전 내 올인원가든센터 등을 둘러봤다.

정원여가산업전에서는 식물과 정원·여가 관련 시설물 등과 함께 다양한 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오 시장은 이어 정원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한 22개팀(단체 포함)에 상장을 수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서울의 주거 형태 절반 이상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녹지, 정원, 풀, 꽃 등의 공간은 로망”이라며 “이런 녹지 공간들을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서울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소주 1병당 30원 적립…홍천~용문 간 철도 건설 후원 눈길

### 홍천군번영회, 롯데칠성음료와 협약

강원 홍천군의 최대 업원인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 홍천군번영회와 주류업체가 소주 1병당 30원을 적립해 후원금을 만드는 사업을 벌여 눈길을 끈다.

홍천군번영회는 지난 4일 롯데칠성음료 측과 용문~홍천철도 조기 착공, 지역발전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역에서 소비되는 소주 1병당 30원을 적립, 홍천 군번영회에 용문~홍천 철도를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기록한다.

홍천군 번영회는 그동안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행사 등에 필

요한 경비를 홍천군에서 지원받지 못해 이번 후원금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번영회는 홍천철도법원민주전위원회와 함께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서명운동을 통해 6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또 번영회원들은 홍천군에서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천500만원을 모아 기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 지역 내 7개 골프장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홍천 주민들에게 20%가량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만들기도 했다.

/ 강석준 기자

요한 경비를 홍천군에서 지원받지 못해 이번 후원금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번영회는 홍천철도법원민주전위원회와 함께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서명운동을 통해 6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또 번영회원들은 홍천군에서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천500만원을 모아 기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 지역 내 7개 골프장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홍천 주민들에게 20%가량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만들기도 했다.

/ 강석준 기자

**내 개인연금,  
글로벌 자산관리로 이전하자!**

앱으로 간단히 개인연금 이전하고  
관리는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랩어카운트로!  
글로벌 연금 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가장 쉬운 방법!  
미래에셋증권 앱으로 연금계좌 개설하시고,  
지금 바로 이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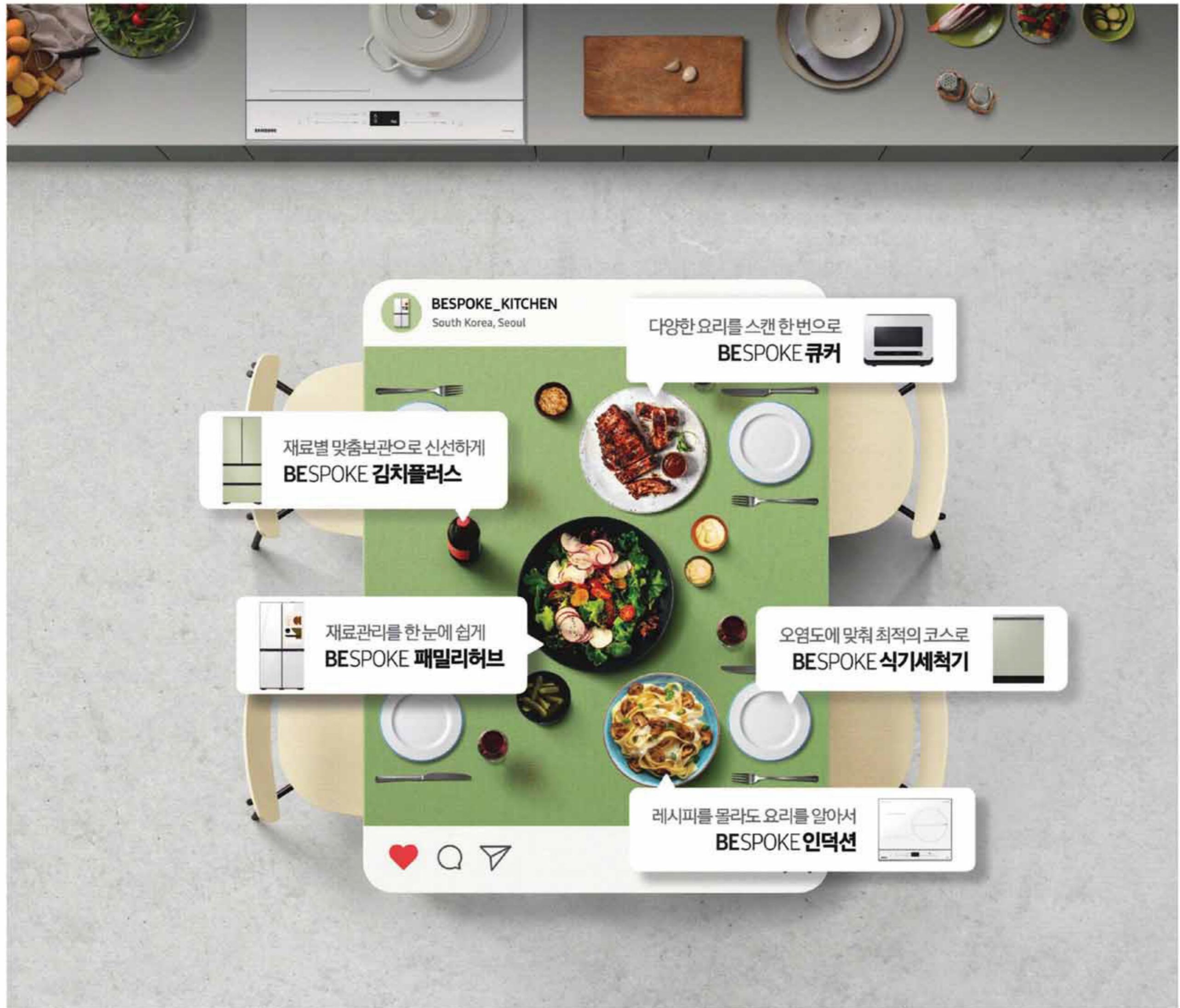
**M STOCK**

증권업계 최초 개인연금 랩어카운트  
미래에셋증권의 본사 전문 운용 인력에 의해 운용되는 투자 일임서비스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랩계약은 위탁매매 수수료와 랩계약의 수수료는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은 고객님이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이며 연금저축 계약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584호 (2023.05.03~2024.05.02)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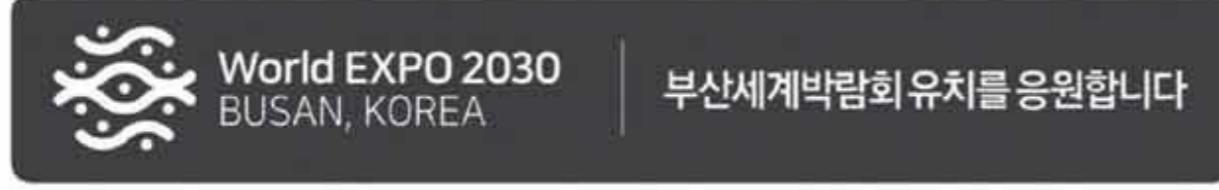
# 집밥은 실전.

보여지는 한 끼를 위해 재료관리, 불조절, 마무리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으니까  
**비스포크가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서.**

**BESPOKE 키친**



가전을 나답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소비자 이해를 증가 위한 인증을 더해지 •SmartThings Cooking 사용을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허용 필요, SmartThings와의 연결 시 인터넷과 Wi-Fi 기능이 커져 있어야 함 •SmartThings 앱을 통해 Android 5.0 이상 지원, iOS 7.0 이상 지원 •제작 16종은 SW/IP 그레드에 따라 번동할 수 있고 실제 조리 시 사용 활용,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조리 시간에 따라 조리 시간에 따라 조리 가능하거나 조리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간식선 - 저울을 쓰고요] 스냅온 및 저울 맞춤 모드 기능은 우측 대화구에서 전용 응용(�) 혹은 가이드에 있는 내용 사용 시 사용 가능 •제작 조리 시 사용 활용,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조리 시간에 따라 조리 가능하거나 조리 가능하거나 조리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온센시 - 전용 드릴기설정] 온센시 가이드에 있는 내용은 별도 구입 필요 •온센시 사용 가이드 •용기초화 100%, 용기재질 스틀리언스, 사이즈(방법)·높이 20~10cm [주전 용기] 예상고장 등 20cm 이내 •온센시는 서비스에서 구매 가능하여 02023년 7월 기준 148000원 가격으로 후부 번동 가능 •[제과 - 스트로우] 제과사 간편히 일정량의 미용을 가능하게 주제 각 미용을 선택하는 화제 및 번동할 수 있음 -과제 27개 / 정제 34개 / 바 5개 / 미어스토리 25개 / 예제 11개 / 대상 25개 / 울루원 24개 / 용기 14개 (22.4kg 기준) •인센스스텐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은 정상 판매면 [제과세척기 - AI 맞춤 세척] •AI 맞춤 세척 국내 60기세척기 최초 한국공인인증(KS)과 AI 한정 판매 •[미온스텐] 고스포팅을 통하여 가능

## 경기도 “5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전 연령층 전방위 돌봄 추진”

경기도는 5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 전방위 돌봄 정책(누구나 돌봄)을 내년에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27회 노인의 날(매년 10월 2일) 기념행사에서 “네 가지 돌봄 정책을 시리즈로 하고 싶고, 특히 어르신 돌봄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대폭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대 돌봄 정책은 전 연령층 돌봄(누구나 돌봄), 영유아·유치원생·초등학생 돌봄, 장애인 돌봄, 반려동물 돌봄을 말한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8월 기준 207만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한다. 지난해 이미 고령사회(14%) 이



6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릎을 꿇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상)로 진입했고, 장래인구추계 상 2028년 이면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 일자리 제공,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여가문화 활성화, 인권 향상 등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정부의 예산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차원의 일자리 1만 개를 추가 발굴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자금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육아나눔터 실버돌보미’, ‘안전실버 지킴이’, ‘노노케어’ 등 10만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경로당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어르신 문화 즐김사업’, ‘24시간 노인상담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무료급식·식사배달’,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 등도 펼치고 있다.

/ 한석준 기자



서귀포칠십리축제 개막 퍼레이드

### ‘젊고 활기찬’ 제29회 서귀포칠십리축제 13일 개막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젊고 활기찬 축제로 거듭난다.

서귀포시는 제29회 서귀포 칠십리축제를 ‘꿈이 빛나는,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칠십리’라는 슬로건 아래 13일부터 15일 까지 3일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칠십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째날은 칠십리 마을문화예술제, 개막식, 개막 축하공연, 드론라이트쇼, 둘째날은 문화예술난장, 전통놀이, 청소년 뮤직&댄스 페스티벌, 디제잉 댄스 파티. 셋째날은 유퀴즈 온더 칠십리, 칠십리가요제 등이 열린다.

축제 상징 프로그램인 ‘칠십리 마을문화예술제’에서는 음연동을 대표하는 동아리와 단체들이 마을 문화를 재해석한 걸궁, 마당극 등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13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개막식은 시

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개막선언과 김완선, 양지은, 김범수, 노라조 등의 라인업으로 화려한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성산부터 대정까지 주요 경관을 이미지화한 드론 500대가 밤하늘을 빛으로 그려내는 드론라이트쇼가 서귀포의 밤을 밝힌다.

서귀포시는 월드컵경기장 광장 입구에 서귀포 칠십리의 자연을 상징적으로 연출한 포토존을 마련하고, 축제장에는 16종의 원데이 클래스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홍보관 등 다양한 즐길거리, 머거리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자세한 축제내용 및 참가신청은 축제 공식 인스타그램(chilsimni\_festival)과 서귀포시 홈페이지(seogwipo.go.kr/festival)를 통해 안내되며, 문의는 시청관광진흥과(☎064-760-3942)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귀포를 제대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 인천 교통요금 오늘 인상

#### 지하철 1천400원·버스 1천500원

인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이 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오르며 통합 환승 할인제를 적용받는다.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직행 좌석) 요금은 2천650원에서 3천원으로, 광역급행버스(BRT)는 2천200원에서 2천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천 셔틀과 여객선 운임도 성인 기준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여객선 운임은 인천시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인천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다.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누적

되면서 지난해 기준 운송 적자는 지하철 1천736억원, 버스 2천648억원을 기록했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에 맞춰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이용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2026년까지 시내버스 2천39대에

공기정정기를 설치하고 버스 정류장 505곳을 신형 시설로 개선한다.

교통 혼잡 지역인 검단·송도·영종 등 신도시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16개 노선의 시내버스 59대를 확충하기로 했다.

/ 안병호 기자

### 세종시장 “국회 세종으로 이전하면 진정한 지방시대 열릴 것”

####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 예산 확보된 만큼 세종의사당보다 빨리 들어올 것”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7일 세종시민체육대회가 열린 조치원읍 세종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규칙안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예산 일부가 확보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보다 더 빨리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게 아니라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세종의사당 이전을 담은 국회규칙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5명에 찬성 254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회사무처는 정부세종청사와 금강 사이 61만6천㎡에 2028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이 마무리되면 국회의사당 설계 공모와 공사 발주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백건우 기자

### “야생 먹거리 가득”…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개막

갖가지 이색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전북 완주군 ‘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6일 고산자연휴양림에서 막을 올렸다.

이 축제는 아생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놀이를 체험하며 지역의 특색있는 요리와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완주의 대표 행사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개막

식에서는 현진우, 정동원, 흥진영 등 인기 가수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달군다. 드론 300대가 밤하늘을 유영하는 드론쇼는 관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사흘 동안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행사가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한다.

구덩이에 감자와 고기 등을 묻은 뒤 증기로 익히는 ‘감자삼구’를 비롯해 데지고기와 물고기 등을 직접 불에 익혀 먹는 ‘화덕구이’ 등이 대표적이다.

120여개 화덕이 펼쳐진 파이어존은 매년 관광객과 시민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로컬밥상 부스에서는 완주군 13개 읍면의 주민이 직접 만든 표고버섯 사례기밥, 잔치국수, 버섯탕수육, 인삼튀김, 육회 등을 맛볼 수 있다.

/ 흥지현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ncheon petrochem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픽쳐입니다 ]  
#에너지 및 자원순환 #선한 에너지 #선제적 혁신 #효율적 에너지 솔루션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 작품명 세상을 지키는 선한 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은  
에너지 공급과 자원의 재순환을 통해  
세상을 선한 에너지\*로 채웁니다

\*선한 에너지는 탄소를 줄여 나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혜택을 전하고자 하는 SK인천석유화학의 지향점입니다



Hi

SK인천석유화학의 **그린픽쳐**



SK innovation SK energy SK geo centric SK on SK enmove SK incheon petrochem SK trading international SK ie technology SK earthon

## K리그2 김천, 3연승으로 ‘선두 턱밑 추격’…1위 부산은 무승부

김천, 부천에 3-1 승리…부산은 ‘꼴찌’ 천안과 0-0

프로축구 K리그2 김천 상무가 부천FC를 제압하고 ‘꼴찌’ 천안시티FC와 득점 없이 비긴 선두 부산 아이파크를 승점 2 차로 압박했다.

김천은 7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3 35라운드 홈경기에서 부천을 3-1로 꺾고 신나는 3연승을 이어갔다. 이로써 김천(승점 61)은 이날 천안과 0-0으로 비긴 선두 부산(승점 63)을 바짝 추격했다.

김천은 전반 38분 이준석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고, 전반 추가시간 김현욱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김현욱의 득점은 결승골이 됐다.



골중볼을 다투는 천안 모파와 부산 민상기

부천(승점 53)은 후반 2분 만에 김호남

이후 경기 주도권을 쥐고 동점골을 노

렸지만, 후반 추가 시간 김천의 강현욱에

의 추격골이 터지면서 반격에 나섰다.

게 쇄기골을 얻어맞고 무너졌다.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부산이 ‘골대 불운’ 속에 최하위 천안과 0-0으로 비겨 연승 행진을 6경기에서 끝냈다.

부산은 7경기 연속 무패(6승 1무)를 기록했지만 2위 김천에 ‘턱밑 추격’을 허용하며 선두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천안(승점 21)은 한 경기를 덜 치른 12위 안산 그리너스(승점 22)를 승점 1차로 따라붙었다.

부산은 11개의 슈팅(유효슈팅 3개 포함)을 시도했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다.

특히 후반 36분 박동진이 골대 정면에서 시도한 헤더가 크로스바를 때린 게 빠 아팠다.

/ 최준영 기자

## 피겨 박은비, 주니어GP 7차 대회 5위 권민솔 ‘파이널 확정’

한국 피겨 여자싱글 유망주 박은비(평촌중)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데뷔 무대를 5위로 마무리했다.

박은비는 7일(한국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2023-2024 ISU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58.32점, 예술점수(PCS) 49.09 점을 합쳐 107.41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59.22점)를 합쳐 총점 166.63점을 받은 박은비는 5위를 차지, 자신의 첫 주니어 그랑프리 무대에서 ‘톱’에 포함되는 선전을 펼쳤다.

함께 출전한 고나연(별가람중)은 프리스케이팅에서 3차례나 넘어지는 아쉬움 끝에 82.75점을 받아 쇼트프로그램 점수(54.69점)를 합쳐 총점 137.44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이번 7차 대회에서는 일본의 시마다 마오가 프리스케이팅에서 136.67점을 받아 쇼트프로그램 점수(73.14점)를 합쳐 총점 209.8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시마다는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에서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고 이어진 쿼드러플(4회전) 살코에서는 착지 때 넘어지



박은비

며 점수를 깎았지만, 나머지 과제들을 차분히 성공하며 점수를 끌어올렸다.

미국의 엘리스 린 그레이시(176.11점)와 세리 장(175.18점)이 2~3위에 랭크됐다.

이번 7차 대회를 마지막으로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가 막을 내리면서

오는 12월 7~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치러지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나설 6명의 선수도 모두 확정됐다.

/ 남희정 기자

## 35세 김희승, 두 달간 17kg 감량해 주짓수 은메달

남들은 은퇴를 고려할 나이에 살인적인 체중 감량과 훈련을 소화하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의 꿈을 꿨던 주짓수 종량급 국가대표 김희승(35·대한주짓수회)이 어렵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희승은 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주짓수 남자 85kg급 결승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살 알카테비와 2-2 동점을 이뤘으나 어드밴티지에서 1-2로 밀려 석패했다.

김희승은 결승전 초반 상대 선수와 눈치 싸움을 펼쳤고, 두 선수 모두 소극적인 플레이로 페널티 2개씩을 주고받았다.

두 선수는 경기 종료 2분 40초 전에 세 번째 페널티를 주고받아 2-2 동점을 이뤘고 어드밴티지도 1-1 균형을 맞췄다.

김희승은 경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탑에서 기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대 선수의 가드를 뚫는 데 실패했고, 경기 종료 35초를 남기고 어드밴티지를 내주면서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으나 심판 판정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패배가 확정됐다.

유도 선수 출신인 김희승은 종합격투



기(MMA) 선수 생활을 하다가 안와 골절, 코뼈 골절 등 수많은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내렸고, 부상 여파로 주짓수로 전향해 선수 생활을 이어왔다.

1987년생인 김희승은 적지 않은 나이에 마지막 아시안게임 도전에 나섰으나 목표로 걸었던 금메달은 코 앞에서 놓쳤다.

경기를 마친 김희승은 공동취재구역(미스트존)에서 “아시안게임에 나서기 위해 두 달 동안 약 17kg의 체중을 감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내 모든 것을 쏟아냈는데 결과가 아쉽다”라고 말했다.

/ 민현주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 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왼쪽부터 소렌스팀, 박세리, 모태범, 김주연

## 부산에 모인 라이벌 박세리·카리 웹·소렌스팀 “함께 해 영광”

안니카 소렌스팀, 카리 웹 등 박세리 감독과 함께 미국여자골프(LPGA) 투어를 주름잡던 레전드 선수들이 국내 스포츠 영웅들과 조를 이뤄 한판 대결을 시작했다.

### 국내 스포츠 레전드와 2인 1조로 경기

#### 갤러리·레전드 웃음꽃

7일 부산 기장군 스툰게이트CC에서 ‘2023 Maum 박세리 월드매치’가 열렸다.

박세리, 안니카 소렌스팀, 카리 웹 외에 미셸 위, 로라 데이비스, 수잔 파테르센, 에이미 알컷, 박지은, 최나연, 김주연, 한희원, 김하늘 등 국내외 골프 레전드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평소 골프 아마추어 고수로 알려진 국내 스포츠 영웅들과 2인 1조를 이뤄 포섬 경기 방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포섬 경기는 두 선수가 한명씩 번갈아 볼을 치는 방식이다.

미셸 위·신수지(체조), 카리 웹·김택수(탁구), 로라 데이비스·진종오(사격), 수잔 페테르센·현정화(탁구), 박지은·이동국(축구), 에이미 알컷·박태환(수영), 정아니·윤성빈(스켈레톤), 한희원·김승현(농구), 최나연·이형택(테니스), 김하늘·윤석민(야구), 김주연·박세리, 아니카 소렌스팀·모태범(스피드스케이팅)이 조를 이뤘다.

대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회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카리 웹은 “오랫동안 못 봤는데 훌륭한 12명의 선수와 한자리에 서서 영광”이라며 “지금은 호주에서 코스 디자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미셸 위는 “은퇴 후에 너무 재밌게 살고 있다”며 “이런 레전드 사이에 제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대회를 통해 조성되는 수익금은 우승팀 선수들의 이름으로 스포츠, 문화,

예술 공존의 가치를 위한 기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 조규현 기자

## 함께하는 100년 농협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액의 30% 상당 담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 16.5% 공제

###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협은행·농축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제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MBN 8090 오디션 '오빠시대'…“우리시대의 오빠는 누구인가”

“시청자들을 다시 소녀로 만들어주는 오빠가 ‘오빠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요?”(가수 겸 배우 지현우)

옛 소녀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최고의 ‘오빠’ 자리를 건 58명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날 오후 9시 10분 처음 방송하는 MBN 음악 예능 ‘오빠시대’는 1980~1990년대 명곡들을 재조명하며 2023년의 새로운 ‘오빠’를 찾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MC를 맡은 지현우는 6일 서울 마포구 스텝포드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오빠시대’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내가 엄마가 아니라 내 안에도 소녀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MC로서 나의 역할은 호텔리어”



라며 “58명의 주인공이 긴장을 덜고 노래 할 수 있게끔 체크하고, 심사위원들이 편안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하고, 관객분들이 지치지 않고 공연을 잘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58명의 출연자가 8090 음악으로 무

대를 선보이면 11명의 심사위원 ‘오빠기’와 250명의 관객 ‘오빠부대’의 투표로 다음 라운드에 누가 진출할지를 정한다.

심사위원인 ‘오빠지기’로는 변진섭, 구창모, 김원준 등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이 나선다.

변진섭은 “1980~1990년대는 우리나라 가요의 르네상스 시대 같다”며 “그때 그 시절의 보석 같은 음악들이 그 시대 음악을 모르는 세대에게 재조명되고, 가족과 함께 방송을 보면서 음악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창모는 “8090 노래를 똑같이 부르면 모창밖에 안 되고 감동도 없다. 음악을 어떻게 자기만의 표현으로 재해석해서 관중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요소들을 가진 출연자가 대단히 많아서 놀랐다”고 했다.

연출을 맡은 문경태 PD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음악 예능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의 감성과 추억에 젖어 들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채원 기자



### 르세라핌, 방콕 공연 취소…“멤버 3명 독감 판정”

그룹 르세라핌이 멤버들의 건강상 이유로 7일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던 콘서트를 취소했다.

소속사 쏘스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 앱을 통해 2023 르세라핌 투어 ‘플레임 라이즈’(FLAME RISES) 방콕 공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멤버 김채원, 허윤진, 카즈하는 6일(현지시간)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

통증을 보여 병원을 방문했고 A형 독감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컨디션과 의료진 소견에 따라 공연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연 취소에 따른 티켓 환불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이희진 기자



###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프로그램에 '낭만닥터 김사부3' 등 선정

한국광고주협회는 광고주가 뽑은 올해 조업 강국으로’ ▲ 한국경제신문 ‘산으로의 프로그램상·신문기획상·마케터상·공로상 등 4개 분야의 ‘2023 KAA 어워즈’ 수상작을 5일 발표했다.

조업 강국으로’ ▲ 한국경제신문 ‘산으로가는 규제개혁’ ▲ 비즈위치 ‘DX인사이트’ 등 5편이 받았다.

올해의 마케터상에는 ▲ SK이노베이션 벤류 크리에이션 센터 ▲ 삼성전자 한국총괄 IMC그룹 ▲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웰리 TF팀이 선정됐다.

공로상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지낸 최영범 전 한국광고주협회 운영위원장에게 돌아갔다.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과 광고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광고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 KAA 어워즈’ 시상식은 오는 19일 ‘2023 한국광고주대회’에서 열린다.

### 아이유 측, ‘표절 고발’ 법적 대응…“민형사상 조치”



가수 아이유(IU) 측이 각하로 마무리된 표절 고발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후속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관련 민형사 소송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정인은 지난 5월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법무법인 신원은 수사기관이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아이유 측은 같은달 8일 서울 중앙지법에 고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형사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이유 측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를 상대로 비방을 일삼는 불특정 다수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중 표절 사건 고발인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한다.

법무법인 신원은 고발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고발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아이유를 상대로 한 살해 협박이 발생했다는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및 아이유 본가로 긴급 출동하는 일도 발생했다.

소속사는 “허위 신고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표절 사건) 고발인을 비롯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수사기관에 신속,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소희 기자

### BTS 제이홉, 진 이어 육군 특급전사…“매 순간 최선”



었다”고 전했다. 특급전사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 체력 검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자격을 땔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홉은 “생각보다 빠른 적응으로 열심히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 조직에서 느끼는 첫걸음, 첫 단추와도 같은 부분을 함께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라 매 (훈련병) 기수마다 부담감도 크다”고 조교로 복무하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래도 그 의미 하나만큼은 BTS 활동 못지 않게 뿌듯하다”며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더 멋지게 성숙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왔다”고 덧붙였다.

/ 김성호 기자

###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http://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하나은행  
OFFICIAL PARTNER



#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편

승부를 넘어 하나 된 태극전사의 눈부신 도전을  
하나은행이 응원합니다

